**제8차 실무위원회**

* **개요**

|  |  |
| --- | --- |
| 기간 | 2011-07-18 ~ 2011-07-21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닝샤후이족자치구, Yinchuan Kempinski Hotel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닝샤후이족자치구 |
| 참가 | 5개국 25개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베이성, 후난성, 산시성(산서:옵),랴오닝성(옵)  |
| 일본국 | 토야마현, 효고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몽골국 | 볼강아이막, 오르홍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부랴찌아공화국, 자바이칼스크 변경주 |
|  | 유관기관 | 한국외교통상부 |

* **내용**

|  |  |
| --- | --- |
| ▷2014년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전라남도 개최 합의▷대한민국 경상북도 연합사무국 연임 및 계속 존치 합의▷생명.의료 및 농업분과위원회 신설 결정

|  |
| --- |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

 |

* **합의문**

▶ 2011년 NEAR 제8차 실무위원회 회의 ◀

합 의 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8차 실무위원회 회의가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회원 및 비회원단체를 포함하여 5개국 24개단체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7월 19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서 “협력심화로 만들어가는 공동번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회의는 개막식, 연합의 주요활동으로 2010년 제8차 경기도 총회결과보고, 사무국 및 8개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보고와 NEAR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회원단체 발표에 이어,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와 연합사무국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된 의제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2012년 제9차 총회의 아젠다를 선정하는 등 회의결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 주요활동보고】

1. 2010년 제8차 경기도 총회 결과보고

제8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장단체인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는 2010년 10월27일부터 10월 29일까지「Shared Prosperity Through Cooperation,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주제로 하여 5개국 48개단체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NEAR 총회를 개최했다. 주요사항으로는 2012년 NEAR 제9차 총회 개최지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로 결정했으며 연합헌장 제7조(임원), 제20조(언어)의 조문 개정 및 러시아 케메롭스키주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회비제 도입시기 제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으나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재기될 경우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 등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준회원제도입안을 승인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원 명기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차기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코디네이트가 희망할 경우에는 공동 코디네이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2. 연합사무국 주요활동보고

사무국에서는 1) 회원단체간 각종 국제행사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하여 협력했고 실무자간 화합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11.5.18~5.20일간 5개국 3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NEAR 실무자워크숍」개최 2) 연합의 국제위상 강화를 위해 AER, UNESCAP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4개국의 관련 회원단체로부터 매년 직원을 파견받아 국제기구에 걸맞는 운영체제 마련 4) 연합설립 이후 연합의 성과와 활동을 총정리한 「NEAR백서」발간 및 NEAR News지를 격월간 6개국어로 발간 배부 5)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지역간의 협력”을 주제로 2010.10.26일 5개국가의 경제․환경 관련 학자 및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EAR 국제경제포럼」을 개최 6) 실무위원회와 총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의장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3.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2009년 12월 구미시에서 5개국 50여명의 경제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발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제통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2010년 9월 FAO 아태지역 총회, 2010년 10월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2년 9~10월경에는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회의겸 무역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제9차 환경분과위원회 이후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보고자료를 번역하여 회원단체에 송부했고, 분과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해변의 표착물 조사 등)조사를 실시했으며 (재)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NPEC)의 홈페이지에 개재했다. 한편 제10차 환경분과위원회는 2011년 가을 개최할 예정이다.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은 러시아연방 연해주의 러시아민요코러스그룹 “야르마르카” 를 초빙하여 공연 및 시마네현 학교 합창부와 공연하는 등 「동북아시아 국제문화 팔레트」를 개최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차세대를 담당할 청년들의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2011.7.29~8.3일 참가 지역의 문화 소개, 체험학습 등 다문화 교류를 통한 교류 프로그램인 「2011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를 개최할 계획이다.

 4)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은 2011년 3월 “국제긴급원조”를 테마로 41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2012년 3월 제10차 방재분과위원회는 금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카운터파트 방식의 지원활동을 소개하고 “커뮤니티 방재력의 향상”을 테마로 하여 방재훈련을 체험할 계획이다.

 5)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한국 경기도는 “바이오기술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2009년 제2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4개국 9개단체 24명의 바이오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 소개, 바이오분야의 국제협력 사례 발표 등 동북아 지역 바이오산업분야의 정보공유와 최신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교류했다.

 6)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중국 산둥성은 2009년 창설회의이후 2011년 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활동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인 이용을 위한 포럼을 2011.9.15~ 9.18일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개최하며 재생 가능한 해양자원의 개

발과 해양어종 및 해초류의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럼으로 이루어지며 해양어업기업 및 문화시찰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7) 관광분과위원회

중국 허난성은 관광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허난․한국 문화관광교류의 해」, 「중국(정저우) 세계관광도시시장포럼」, 「중국 국제 황하 관광페스티벌」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정저우-인천 관광 전세기 협의“체결 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2010년 10월 쟈오쭈어(焦作)시에서 제2회 관광분과위원회 정기회의를 “저탄소 관광, 동북아부터 시작” 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참가회원단체의 저탄소 관광 정책을 소개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관광발전에 기여했다.

8)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는 분과위원회 신설이후 2012년 4월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원단체간 정책교류와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기후변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아울러 2012년 국제 신재생에 너지 전문 전시회(2012 Green Energy Expo)와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회원단체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참가 회원단체는 연합 주요활동보고를 통해 분과위원회 등 연합 행사뿐만 아니라 회원단체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다.

【회원단체 발표 및 토의 사항】

1.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의 2012년 제9차 총회 개최시기 제안

 동북아지역의 농업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9차

총회를 “동북아지역원예산업세미나”와 연계하여 2012년 7월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토의한 결과 2012년 7월의 제9차 총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2.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 NEAR발전을 위한 제안

 1)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헌장에 분과위원회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조건, 역할 등을 명시

 2) 회원단체의 회의 참가 부담해소를 위해 워크숍이나 실무위원회 회의기간 중 분과위 회의 동시 개최를 제안

 3)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시 특정 회의 주제를 정하여 회원단체 발표 및 논의가 필요하며, 참여 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Working Language가 필요하다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분과위원회의 他 회의와의 동시개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이 제시되었고 Working Language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용어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NEAR의 중장기발전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3. 몽골 오르홍아이막의 국제교류협력사례 발표

몽골 오르홍아이막에서는 러시아, 중국 내몽골자치구,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미국 등을 비롯하여 연합 회원단체간의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의 확대발전과 국제교류에 대한 지역내 기업 및 기관의 참여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사례를 발표했다.

【실무위원회 의제 발표 및 심의 등 사항】

1.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2014년 제10차 총회 유치 신청

대한민국 전라남도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의 세계화속에 국제사회의 주역인 NEAR의 2014년 총회를 유치하고자 신청했다. 이에 참가 회원단체 토의결과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동 내용을 2012년 제9차 총회에 공식상정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차차기총회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2.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연합사무국 연임 및 영구존치 제안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2004년 연합사무국을 유치한 후 「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재정 및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연합사무국의 연임 및 영구존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참가 회원단체는 경상북도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토의한 결과 경상북도의 연합사무국 연임 및 장기적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동 내용을 2012년 제9차 총회에 공식상정하기로 하였다.

3. 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대한민국 충청북도 및 전라남도에서 각각 제안한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와 「농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토론결과 결정하였다.

4.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

2010년 제8차 총회에서 결정된 공동코디네이터제 운영방안을 명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명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에 실무위원회에서는 참가 회원단체의 토의결과 총회의 결정 및 회원단체 제안 등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  |
| --- | --- |
| **현 행**  | **개 정** |
| **제5조(운영)** 1.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이하「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 **제5조(운영)** 1. 현행과 같음 |
|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을 막지 않는다.** |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공동코디네이트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신방식(우송, 팩시밀리 등)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 3. 현행과 같음  |
| **4.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각 분과위원회는 임기내에 1회이상 회의 또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
| **5. 신설** | **5. 분과위원회 운영시 회원단체의 참가는 5개국 10개 이상 단체의 유지를 원칙으로 노력한다.**  |
| **6. 신설** | **6.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  |  |
| --- | --- |
| **현 행** | **개 정** |
| **제6조(참가)** **1. 분과위원회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각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에 참가 신청을 한다.** | 제6조(참가) **1. 모든 회원단체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해당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2. 삭제**  |
|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회의결과를**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
| 부 칙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부 칙****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5.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제안한 회비제 도입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도입에는 찬성하고 도입시기에 관해서는 2016년 NEAR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정하며, 과도기적으로 2013년부터 3년간 『특별용도를 위한 특별회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회비의 차등화와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2012년 총회이전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부 칙

 이상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8차 실무위원회 합의문은 영어와 병행하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6개언어로 작성하여 연합의 모든 회원단체에게 발송한다.